社團法人 全北鄕土文化研究會는 전라북도 일원의 향토 문화를 조사·연구하여 地域文化 발전에 이바지 한다.

- 地域 歷史·文化學의 종합 연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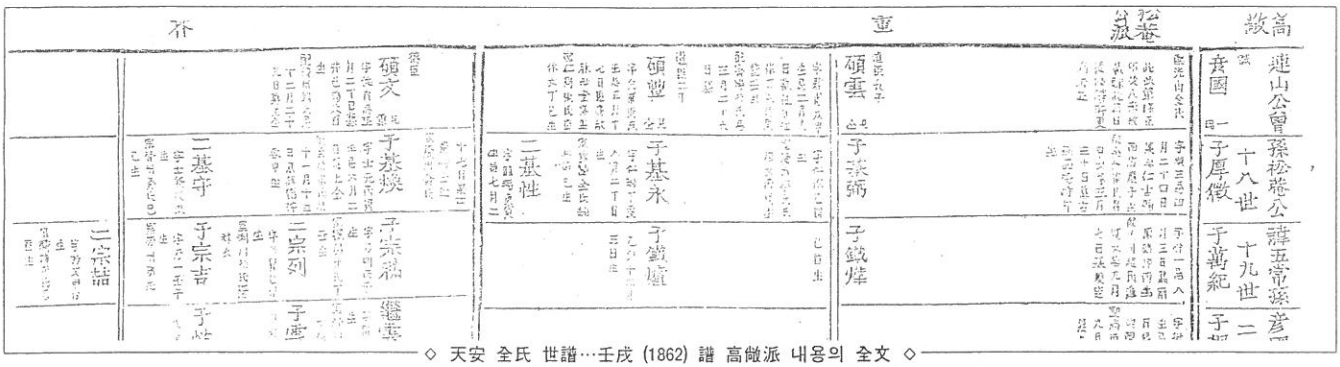
全北文化

社團法人 全北鄕土文化研究會 會報

2004 (3) 매월 5일 발행 제13호

新亞出版社
560-080 全州市 完山區 太平洞 251-30
전 화 (063)275-4000·0484·6374 252-5633·3131
팩 스 (063)274-3131 E-mail: shina@shin-a.co.kr

·名譽會長: 宋俊浩·會長: 李治白·印刷: 新亞出版社 月刊 〈題字: 斗下 鄭雲炎 본회고문〉 〈非賣品〉 ·560-040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140-12 (全北 儒道會館 2층)(063)288-3646 팩스(063)288-7447



◇ 天安 全氏 世譜…壬戌 (1862) 譜 高敞派 내용의 全文 ◇

全琫準 出生地는 高敞읍 堂村 마을

陳 錤 洪

〈韓國古書研究會 고문〉

1894년 3월, 우리 고장 전북에서 거사의 기치를 올린 東學農民革命의 영도자로 우리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로 숭앙 받고 있는 녹두장군 全琫準(1855~1895)은 그의 업적과 함께 우리 역사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저서와 논문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出生地에 관하여는 의견이 분분할 뿐 정설이 없는데 그가 불과 100년 전의 인물임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발표된 그의 출생지는 무려 6~7개소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다음의 두 곳이다.

1.高敞縣 德井面 堂村說

현재의 高敞邑 竹林里 堂村마을인데 吳知泳(1868~1950)의 「東學史」(1940年 刊)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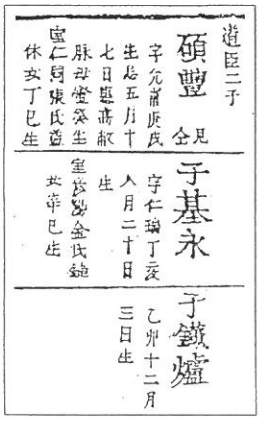
2. 古阜郡 현재의 井邑市 梨坪面 鳥巢里說

金庠基(1901~1977)의 「東學과 東學亂」(1931. 9. 19 東亞日報 연재 23회)의 주장이다.

이 두 가지 주장을 놓고 따져 보겠다. 먼저 高敞 출생설인데 吳知泳은 그의 「東學史 초고본」에서는 全琫準의 출생지를 高敞縣 半溪里, 현재의 高敞邑 栗溪里라고 기록하였다가 「東學史」에서는 栗溪里와 2km 떨어진 堂村마을로 수정 발표한 것을 보면 그간에 이에 대한 연구가 가해졌음을 짐작케 하며, 이 밖에도 全琫準의 아버지가 高敞 근처인 逍遙山의 암자에서 공부하면서 胎夢을 꾸고 琫準을 얻었다는 일화와 또 한가지 全琫準이 13세 때 지었다는 白鷗詩를 발굴하는 등 많은 방증 자료도 소개하고 있다. 吳知泳은 본디 高敞과 인접한 茂長(현재의 高敞郡 茂長面)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高敞으로 이거하여 청소년기를 보냈고 東學農民革命에도 참여하였으며 평생을 東學史 연구에 전념한 점으로 보아 나는 그의 주장에 신빙성을 두었고 나 역시 高敞출신으로 어렸을 때 祖父님을 비롯하여 여러 갈래로 全琫準이 高敞태생이라는 말을 들었다.

다음으로는 金庠基의 古阜출생설인데 그 곳에서 全琫準이 居住한 사실이 있어 현지 주민이 출생지로 생각한 것 같으나 특별한 증거가 있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 학계에서는 이 곳을 가장 유력한 출생지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1991년에 펴낸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全琫準의 출생지에 대하여는 여러 설이 있으나 古阜郡 宮洞面 陽橋里 지금의 井邑郡 梨坪面 長內里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卷19. 515P)

이렇게 되어 全琫準의 출생지는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는가 하였더니 1993년 9월, 그의 출생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공개되었다. 즉 全琫準 연구가인 全河禹著「巨儒 全琫準의 改革思想」(榮元社刊)이 발간되었는데. 그 가운데 全琫準의 家系를 설명하는 자료로 「天安全氏世譜」(壬戌譜)가운데 高敞派인 全琫準 一家의 族譜가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全琫準의 위로 3대에 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祖父 : 碩豊, 字는 允甫, 庚戌(1790)生, 忌日은 5월17일이고 墓는 高敞 脈母嶝에 있으며 夫人은 仁同 張氏 益休의 女로 丁巳(1797)生이다.

父 : 基永, 이름은 初名인 基永. 字는 仁瑞이고 丁亥(1827) 8월 20일生이며 夫人은 彥陽 金씨 鍵의 女로 辛巳(1821)生이다.

本人 : 鐵爐, 이름은 初名인 鐵爐이고 乙卯(1855) 12월 3일生이다.

이 壬戌譜는 全琫準(鐵爐)가 7세 때인 壬戌(1862)년 3월에 錦山에서 발간되었는데 분명히 高敞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가 2세 때인 1857년 5월 17일에 사망한 祖父 碩豊의 墓가 高敞 脈母嶝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全琫準이 高敞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충분히 立證하고 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高敞이 그의 世居地 즉 대대로 내려 살아 왔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는 수긍할 수가 없고, 그의 曾祖父 형제의 墓가 任實·井邑 등지에 있는 것으로 보아 全琫準 一家는 그의 祖父인 碩豊이 처음으로 高敞에 터를 잡은 것 같다. 壬戌譜의 高敞派 부분은 그 전부를 본문의 아랫 부분에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의 첫머리에 "此派軍樣正印後入來故載錄此篇日後修譜時更爲考正"즉 이 派(高敞派)의 원고는 족보의 인쇄가 된 뒤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이 편(卷16)의 끝 부분에 게재하며 후일 족보를 다시 만들 때 考正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족보의 출간에 관여한 사람의 명단(有司分定記)을 보면 高敞派의 원고 수집과 분담금의 징수 책임자(收單收錢)가 全基永 즉 琫準의 아버지로 되어 있음으로 보아 이는 인쇄가 끝난 후에 譜所로 찾아가 그의 원고를 등재케 하였다는 것으로 당시 보소를 관리하던 문중의 중진들이 이를 수용한 점으로 보아 基永의 인품을 짐작케 한다.

어떻든 이 族譜의 발견으로 全琫準의 출생지는 高敞임이 분명해졌고 이에 관한 論難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나는 믿고 있었다.

그런던 중 뜻밖의 소식이 高敞으로부터 알려왔다. 내용인즉 지난해 12월 19일, 井邑市에서 열린 갑오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주최하는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모 연구가에 의하여 「전봉준장군 출생지 정립」이라는 주제로 장문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1886년에 발간된 天安全氏世譜(丙戌譜)를 근거로 全琫準의 祖父 碩豊의 墓가 古阜에 있는 것을 들어 全琫準이 古阜에서 태어나 그 一家가 高敞으로 옮겼다고 추리한 것이다. 이는 그 墓가 高敞에서 古阜로 移葬한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니 그에 대하여는 할 말이 없고 오직 文獻의 귀중함을 절감하였을 뿐이다. 다만 나로서는 壬戌(1862)譜의 발견을 全北地方에 만이라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을 自責하고 이 拙文을 쓰게 된 것이다.

끝으로 壬戌譜에 관하여 몇마디 附言하겠다. 壬戌譜에 全琫準 一家가 등재되었을 것이라는 정도는 일찍이 高敞지방에서 들었다. 그리하여 나는 1980년대에 그 族譜가 있다는 完州郡 鳳東邑 全泰然씨를 2차례나 심방했으나 卷1 卷16의 두권의 缺本으로 全琫準의 家系는 찾지 못하였는데 全河禹씨의 발표가 나온 것이다. 나는 全河禹씨에게 원본의 소장처를 문의하였으나 오래 전에 수집한 바라 현재의 소장처는 모른다는 회답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마도 서울 시내의 圖書館에 소장되었을 것이라는 짐작으로 族譜類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국립中央圖書館을 뒤졌는데 壬戌譜(1862)는 없었다. 그런데 60년 후에 나왔다는 壬戌譜(1922)가 목록에 있는 것이다. 혹시나 하는 기대로 이를 뒤졌드니 도서관의 실수로 1862년을 1922년으로 잘 못 소개한 것이었다. 그 후 壬戌譜(1962)로 수정하였다니 필요한 분은 이를 찾아 보기를 바란다. 나는 이미 望百의 나이로 기력이 쇠퇴하여 執筆이 어려워 두서없이 그간의 사정을 밝히는 바이니 여러분의 혜량을 간절히 바라면서 끝을 맺는다. 〈2004. 2. 15〉 ■

天安全씨 世譜서 判明

高敞派의 壬戌譜에 뚜렷이

◇ … 지금 우리가 살길은 양반이 아니라 상놈에 달려 있다. (金佐鎭, 家奴해방에)

동진강 아리랑 金民星 … 파랑새 파랑새 / 울고간 자리 / 떠나가는가 / 다시 떠나가는가 // 눈물이 나도 멈추지 마라 / 청포장시 / 울고간 자리 / 오늘은 강이 울고간다 / 내가 울고 간다.